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2.6.20(월) ~ 2022.6.25(금)

제공일시 2022 07 01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

문의 02 398 7675

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2.6.20(월) ~ 2022.6.25(금)

제공일시 2022 07 0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뉴스 클리핑 주간자료

1. “ESG 투자는 대세라던데” 글로벌 시장에서 ‘자금 엑시트’... 왜? / '무늬만 ESG' 많다는데... 제대로 된 펀드 찾으려면

-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, 지난달 주식으로 구성된 ESG ETF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났음
- ESG 투자에 대한 본질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투자자들이 동조한 영향으로 풀이되고, 각국 당국이 ESG 투자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이는 또 다른 요인임
- 한편,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, 개인투자자들이 ESG펀드 선택시 도움이 될 팁을 제시하기도 했음. 해당 기업 웹사이트에 들어가 과거부터 ESG투자실적이 있는지 보고, 공개된 DB를 통해 관심 상품을 선별해 보라는 것임
- 애즈유소(As You Sow) 등 웹사이트를 통해 투자 상품이 얼마나 ESG 가치에 부합하는지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함

(에너지경제신문, 2022.06.17.) 박성준 기자
<https://www.enk.or.kr/web/view.php?key=202206170000572>

(매일경제, 2022.06.19.) 신윤재 기자
<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newspaper/001/004679631?date=20220619>

2. 미 SEC의 기후공시 피드백, BRT 멤버들 반대

- 미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BRT(Business Roundtable)은 미국 SEC의 기후공시의무화 규칙에 대해 “실행할 수 없고,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, 부담이 크다”는 피드백을 했음
- BRT는 의견서에서 리스크 증가, 스코프3 배출량 공시에 대한 과도한 부담, 압도적인 양의 공시,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등을 이유로, “제안서의 주요 조항은 초안대로 실행할 수 없고,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”고 밝혔음
- 미국 SEC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무화 규제안에는 기업에 중대한 사안일 경우 스코프 3(Scope3, 공급망 협력업체 등 간접배출량) 배출도 공시하라고 했는데, 당초 60일간의 의견청취기간이었으나 워낙 다양한 소식이 나와 6월 17일까지 청취기간을 연장했음

(ESGtoday, 2022.06.20.) Mark Segal 기자
<https://www.esgtoday.com/us/business-leaders-oppose-secs-proposed-climate-disclosure-rules/>

3.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 4000건 ‘사상 최고’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‘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’에서 발표한 ‘2021 무역기술장벽(TBT) 연례보고서’에 따르면, 지난해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(TBT) 통보 건수가 약 400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
- 지난해 각국이 무역장벽의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WTO TBT위원회에 공식 제기한 특정무역현안(STC)은 EU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(79건), 중국(38건), 한국(34건), 일본(27건) 등의 순이었음
- 이상훈 국표원장은 “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탄소 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”이라고 밝혔음

(중소기업뉴스, 2022.06.20.) 최충락 기자
<http://www.kbiz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1488>

1.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‘ESG 실사’ 한국은 준비 됐나

- 유엔글로벌콤팩트(UNGC)가 주최한 ‘ESG 제도화 포럼’이 열렸음.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ESG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음
-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“우리나라에서 실사 관련 법제화를 시도할 때 대상 기업과 항목 등을 검토하고, 실사 의무의 내용, 위반 시 가할 제재 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음
-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“세계 흐름에 맞춰,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실사 법제화를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”이라고 주장하며 ESG 구성 요소 중 ‘S(사회)’는 인권 개념으로 바라보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음

(이로문넷, 2022.06.17.) 박유진 기자
<https://www.ironet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872>

2. 중대재해법,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하게 시행령 개정된다 / 6개월 만에 완화되는 중대재해법... ‘근로시간 계좌제’도 도입

-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불분명하게 명시됐던 경영책임자 의무 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 될 전망이다
- 또,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,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하여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경직적인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음
-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하고 있음

(엔지니어링데일리, 2022.06.17.) 김성열 기자
<http://www.engdaily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653>
 (서울신문, 2022.06.16.) 박찬구 기자
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2061604030a0g_04g_m00r

3. 공정위 손 떠난 온플법... ‘플랫폼 자율규제’ 과기부가 주도한다

-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낙점되면서,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림
- 정부의 플랫폼 자율 규제안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‘자율 규제 기구’를 만들고, 거래 관계 투명성 강화함
- 이에 더해 이용자 편익 증진, 데이터 접근성 제고와 같은 내용을 담아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함

(뉴스웨이, 2022.06.21.) 변상이 기자
<http://www.newsway.co.kr/news/view.php?idx=20220621022007215>

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기간 : 2022.6.20(월) ~ 2022.6.25(금)

제공일시 2022 07 0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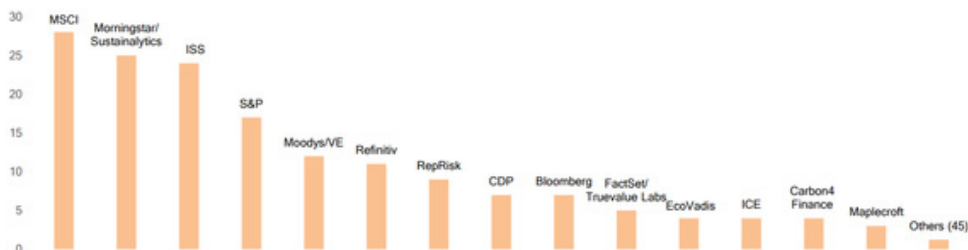
유럽 증권감독기관, ESG평가기관 조사결과 발표...유럽 자산운용사들은 3분의 2 이상 ESG 기준 부합하지 않는 금융상품 출시와 배포 중지 예고

- 유럽연합의 증권감독기구인 유럽증권시장청(ESMA)이 EU의 ESG 평가등급 제공기관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(현지시각) 밝혔
- ESMA는 “현재 EU에서 활동중인 59곳의 ESG 평가등급 제공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”며 “시장은 소수의 대형 비(非)EU 기반 평가업체와 상당히 많은 다수의 소규모 EU기반 평가업체들로 나뉘어져 있다”고 밝혔
- ESG평가등급 사용자의 77%는 두 곳 이상의 평가등급업체를 사용한다고 응답함. ESG 평가등급 시장이 초기단계인 점, 표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산 클래스별 혹은 적용범위별로 다양한 유형의 ESG 평가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임. 가장 많이 꼽은 단점은 특정산업 또는 유형별 조직(entity)에 대한 커버리지 부족, 데이터 세분성 부족, 복잡성, 방법론 관련 투명성 부족 등이었음
- 한편, ESG 평가를 받는 피평가 기업들은 조직 규모가 큰 기업만 대응을 하는 등 전적으로 피평가기업에 달려있는 상황임. 피평가 기업들은 평가기관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고, 평가등급의 기준, 피드백 시기 혹은 오류 수정에 관한 투명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고서는 밝혔
- ESMA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“ESG 평가등급 및 데이터제공업체를 둘러싼 이 시장은 미성숙하지만 성장하는 시장으로 간주된다”며 “이 시장구조는 현재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구조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”고 봤음
- 한편, 응답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평가기관과 관련해, MSCI, 모닝스타(서스테이널리틱스), ISS, S&P, 무디스 등의 빈도 순으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음. 가장 자주 언급된 ESG 등급 제공업체는 MSCI(28회 언급)였으며, 모닝스타·서스테이널리틱스(25회), ISS(24회), S&P(17회), 무디스(12회), 리피니티브(11회), 렐리스크(9회), CDP와 블룸버그(각 7회), 팩트셋·트루밸류랩(5회), 에코바디스, ICE 및 카본포파이낸스(Carbon4Finance, 각 4회) 및 메이플크로프트(Maplecroft, 3회) 순이었음

(임팩트온, 2022.06.29.) 박란희 편집장
<http://onimpacton.net/news/2022/06/29/01>

(ESMA 홈페이지 참고용)
<http://www.esma.europa.eu/press/news/essma-publications/publications/esg-2022>

(임팩트온, 2022.06.27.) 김민정 기자
<http://onimpacton.net/news/2022/06/27/01>



Note: ESG providers used by respondents (users of ESG ratings), by count of mentioning.
Sources: ESMA

- 한편, 전국경제인연합회(이하 '전경련')는 K-ESG 얼라이언스 위원사를 대상으로 'IFRS(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, 국제회계기준)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'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회한 후, 7개의 종합의견과 44개의 조항별 상세의견을 한국회계기준원에 전달하면서 "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"고 주장함
- 하지만 비슷한 시기인 **27일(현지시각) 유럽의 자산운용사와 관리자들의 3분의 2 이상은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출시와 배포를 중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PwC룩셈부르크가 발표함**
- 335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PwC 조사에 따르면, ESG자산은 2025년 7조4000억~9조유로(약 1경53조원~1경2200조원)로 증가하며 유럽 뮤추얼펀드 자산총액의 최대 56%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. 이런 상황에서 유럽 자산운용사의 72%는 ESG 이외의 상품 출시를 모두 중단할 의사가 있으며, 2024년말까지 60% 이상이 ESG 이외 상품 출시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밝힘
- 글로벌 ESG 관련 시장의 규제와 규칙이 점점 정비되고 있는 상황이라,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